

월간 범어교회보 Vol. 436

늘 푸른 숲

2025. 10

거룩한 동행, 우리는 안전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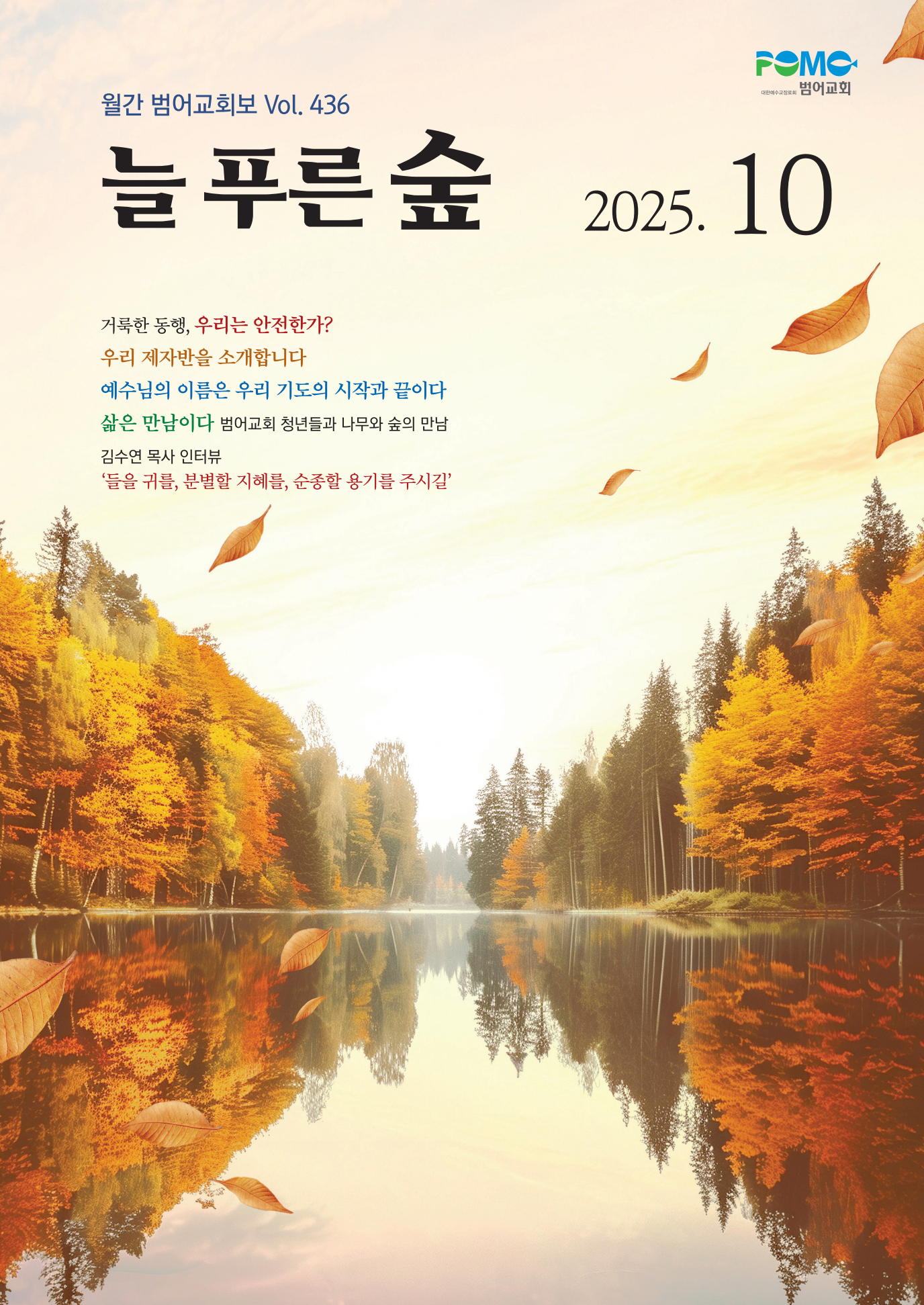
우리 제자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

삶은 만남이다 범어교회 청년들과 나무와 숲의 만남

김수연 목사 인터뷰

‘들을 귀를, 분별할 지혜를, 순종할 용기를 주시길’



말씀에 거하는 자유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 32절



하나님의 열심



이지훈 담임목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네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라.
〈하나님의 열심, 러빔(Luvim)〉

작년에 한 성도님이 본인의 딸이 CCM 사역자라고 하시며 딸이 속한 '러빔'이라는 사역팀이 발매한 앨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그 가사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모두가 참 찌꺼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을 열며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집 앞마당에 큰 평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스르륵 벗겨지던 껍질과 과육이 흘러넘쳐 손을 흠뻑 적시던 연분홍 복숭아, 평상 위 그늘을 만들어 주던 큰 감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평상 위에 누워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허리와 험한 손이 지어 놓은 황금 들녘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바라본 밤하늘의 보름달은 또 어찌나 크던지요.

가을이 되면 오랜 기다림과 수고의 열매가 할아버지의 땀방울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야 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십여 년이 지나도 거두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알 수 없는 미래를 기다려야 하는 막연한 불안도 내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이 그저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붙잡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당신이 보내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 시골 할머니 집 앞마당이 가슴 시리게 그리웁습니다.

복숭아 한 입 베어 물면, 여름이 내 입으로 들어오고, 넘실대는 누런 벼 이삭만 보아도 풍성해지던 유년 시절.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할아버지의 땀방울처럼 벼 이삭 한 알, 한 알마다 박힌 ‘하나님의 열심’으로 심어 놓은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꿈꿀 수 있습니다.

벼 이삭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자연의 교향곡처럼 울리듯,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깊은 메아리를 만들어 내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길, 언젠가는 열매 맺는 속이 짝 찬 고개 숙인 벼 이삭의 출렁이는 물결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 김현성 집사(교회보팀)

2025 October | Vol. 436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10월을 열며 _ 김현성 집사
- 05 목차
- 06 거룩한 동행 | 교회와 이단, 우리는 안전한가? _ 김성애B 집사
- 08 거룩한 동행 | 성도를 위한 기독교 핵심 교리 _ 변영선 집사
- 09 거룩한 동행 |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 _ 이동원 집사
- 10 주일학교 |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_ 고등부
- 11 자유칼럼 | 바울과 아라비아광야 _ 박용수 집사
- 12 제자훈련 | 우리 제자2반을 소개합니다 _ 양지은 · 설효숙 · 박선영 집사
- 14 내 영혼의 찬양 | “너 성결키 위해” _ 원성희 권사
- 16 나의 한 구절 | 김현덕 목사
- 18 청년부 | 새벽이슬 청년부 국내 전도 여행, 제주와의 동행 _ 김수연 목사
- 19 청년부 | 우리의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_ 류승연 청년
- 20 청년부 |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_ 권순형 청년
- 21 청년부 | 범어교회 청년들과 나무와 숲의 만남 _ 권오희 목사
- 22 공감의 장 |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은혜 _ 이소요 집사
- 24 인터뷰 | 김수연 목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9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36호 | 발행일 2025년 10월 5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이영규 | 2025년 교회 표어 “아름다운 동행”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거룩한 동행, 그 두 번째 이야기

진리 위에 더 단단하게 서기 위한 두 번째 거룩한 동행이 9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와 이단에 대해,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독교 핵심 교리와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진리의 말씀을 향한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이단, 우리는 안전한가?

“오늘은 붕어빵 안해요?”가을 특유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왠지 아쉬운 마음으로 9살 딸과 예배당으로 향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교회와 이단이라니 조금 딱딱한 주제라는 생각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탁지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나니 아쉬운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다.

이단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집 근처에서 수시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이단들을 심심찮게 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단으로부터 ‘아직 안전한 것일 뿐’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단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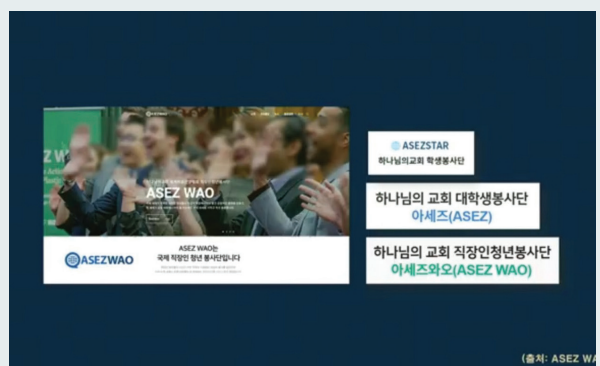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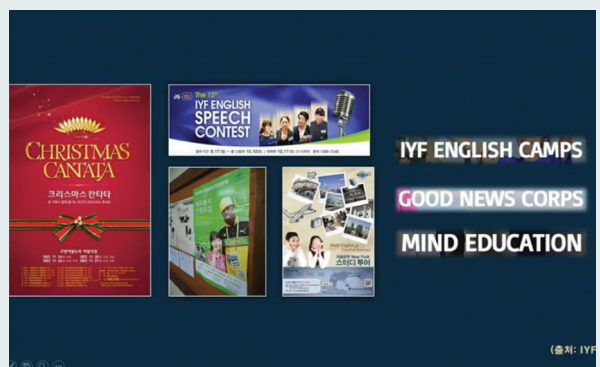
해 무지했고 무관심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단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한다. 이 세대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주며 마음을 얻는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단들보다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믿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이단들은 대학, 군대, 해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한다. 이단들의 이러한 열심이 참 놀라웠다. 나에게는 이런 열심이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신천지(새 하늘과 새 땅) 등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가 이단들에게 훼손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유익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 김성애B 집사(교회보팀)



*이단에 속한 단체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독교 핵심 교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발견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말씀은 “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으로, 신앙의 길에서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도로 위에서 큰 위험이 되는 것처럼, 교리를 모른 채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둘째,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흠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 주고, 우리의 무지를 몰아내며, 참되신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안경을 통해 세상을 선명하게 보듯,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우리가 헌금하거나 봉사한다고 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에베소서 2장 8~9절)

자전거가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듯, 우리의 일상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매일매일 묵상하며 값없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겸손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변영선 집사(3여전도회)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지만, 동시에
정서적 혼탁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를 살
아가고 있다. 세상은 교회에 답을 구하지만, 교
회가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또한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거룩한 동
행 3일차 집회에서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라
는 말씀을 들으며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르틴 루터’ ‘면벌부’ ‘95개조 반박문’ 그리
고 ‘종교개혁’ - 500여 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집
회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윤영희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위트있고 깔끔한 설명을 통해 중세교회의 타락과 방
향 상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이루신 개혁의 본질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루터는 생명의 위협과 사회의 완강한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목숨을 걸어 교회와 신앙의 본
질을 회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몸소 증거하며, 교회의 왜
곡되고 오염된 교리를 개혁하였다. 오늘날 우리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의 거센 파도 앞
에 서 있다. 이 거대한 세속의 흐름 앞에서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며 신앙의 순수성
을 지켜야 한다.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루터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시며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금 반추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정결케
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 Sola Christus, Soli Deo Gloria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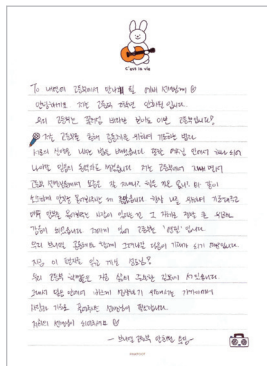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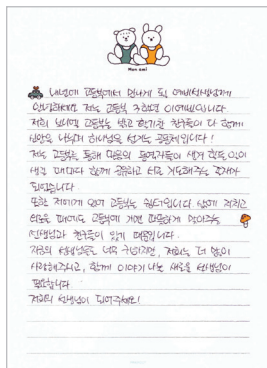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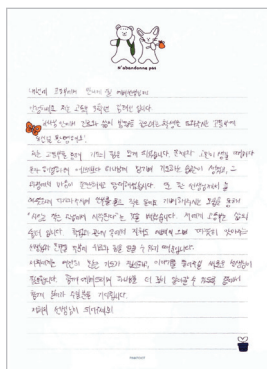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9월 28일(주일)부터 10월 5일, 12일 주일에 1층 ‘주교의 뜰’에서 주일학교 <교사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편지글은 고등부 학생들이 내년에 오실 교사 선생님들에게 자신이 속한 고등부가 어떤 공동체인지, 자신이 속한 마을(반)을 담당해주신 선생님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소개하며 초대하는 글입니다. 21명의 초대 편지글 중 몇 편의 글을 소개합니다.

고등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반응하고자 꾸준히 AT(말씀묵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선생님께서 여쭙았는데 친절히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전민지(고2)

고등부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 덕에 힘들고 지칠 때 예배로 살아갈 힘을 얻고 마음을 회복합니다. 이번 여름수련회에서 선생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제 마음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황리안(고3)

저는 고등부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 고등부는 쉼터입니다. 삶에 지치고 외로울 때에도 고등부에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예빈(고3)



항상 고등부 선생님들이 주일마다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짧게라도 안부를 물어주셨던 게 정말 따뜻했어요. 마을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주일이 아닌 날에도 카톡으로 짧은 말씀과 함께 안부를 물어주시는데,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에게 있어 고등부는 믿음을 키우는 곳이자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와 제자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기도와 응원 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전주연(고2)

고등부를 통해 신앙심이 더 강해지고 고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고등부는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을 때 웃음이 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성연(고1)

저는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요즘 잘 지내니? 힘든 것은 없니?'와 같이 소소하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항상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매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정말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 안희원(고2)

바울과 아라비아광야

베트남에 온 지도 어느덧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집을 떠나 밖에 혼자 있으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모두 내가 처리해야 해야 할 일로 다가왔을 때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된다.

내가 사는 빈(Vinh)시에는 교회가 없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부족한 성도 간의 교제를 보충하기 위해 베트남에 같이 간 믿음의 동기들과 매주 토요일 줌으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후 차재일 선교사의 도움으로 ‘어 성경’(어? 성경이 읽히지네!)교제로 구약과 신약을 연대기 순으로 읽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는 중에 극동방송의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100일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면 창세기에서 받은 은혜를 계시록을 읽을 때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알게 되었다. 매일 QT 본문으로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았다면 이와 더불어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 전체의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바울이 회심한 후 곧바로 아라비아로 간 말씀(갈1:17)을 읽으며 ‘바울은 아라비아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가 늘 궁금했었다. 바울은 오직 주님과 대면하기 좋은 장소로 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집을 떠나 혼자 있을 때가 많은 내 처지와 오버랩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하루에 성경을 평균 12장은 읽어야 한다.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그리고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잡생각이 들지 않게! 처음에는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속 읽게 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말씀 전체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 부분적으로 이해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

히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 총만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름길이다.(엡 6:17) 나의 소원은 일 년에 성경을 4번을 읽는 것이다.

• 박용수 집사(1남전도회)



교사에게 실습과제를 토의하는 모습

*이 글은 작년 봄 KOICA 봉사단으로 선발되어 베트남에서 홀로 봉사하며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말씀의 깨달음을 기록한 글입니다.

우리 제자2반을 소개합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뜨거운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선선한 공기와 바람이 여름과 가을의 징검다리가 되어 우리의 걸을 반갑게 찾아온 고마운 손님 가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 사랑하고, 삶에 감동하며, 익어가는 곡식들처럼 배워가는 기특한 우리들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해 초, 제자반 첫걸음을 떼었을 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제자반이 벌써 2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말씀의 뜨거운 열정과 잔잔한 유머와 멋진 꼴보이스로 늘 우리를 편안하게 배려해 주시는 장영민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하는 열정 가득한 외유내강 우리 제자2반! 각자의 훈련 여정과 은혜로운 삶의 보파리를 풀어봅니다.



예배와 찬양이 좋아서 범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사 나눌 이 없다는 슬픈 현실이 저를 외롭게 하였습니다. 광야의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살기 위해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저의 믿음의 동역자는 유튜브를 통해 설교와 말씀 강해를 해주시는 화면 속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투병생활을 하며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늘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5년이 지난 후 마침내

제자반을 통해 제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처럼 삭막하고 메마르게 느껴지던 교회가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정원이 되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장영민 목사님의 환한 미소가 마치 부모님을 뵈는 듯 기쁘고, 인사 나눌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곳곳에 곡식이 가득 채워진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혼자 말씀을 읽는 것에 익숙한 저에게 제자반은 주의 용사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어가는 소중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시간임을 알기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오늘 하루를 충성하며,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며 살아갈길 원합니다. 끝으로 사도바울의 고백이 내 삶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 양지은 집사

저는 청년부 시절에 제자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배웠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뿌리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눔도 뜨겁고,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말씀과 나눔을 통해 도전도 많이 받고 배워 나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끝까지 훈련에 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 설효숙 집사

작년에 제자반을 신청하려 했지만 교회 등록 기간이 짧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다시 신청을 망설이던 중, 사랑방 목자를 맡게 되면서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오래된 어려움으로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복되었고, 제자2반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배우며 제 안의 완고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엡 5:22)는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제 마음과 입술, 행동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남편을 통해 저를 낮추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지난 13년의 의문에 답이 되었고, 제 교만과 죄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남편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저 역시 낮아짐을 배우며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참된 제자로 세워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찌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신 8:2)

• 박선영 집사



내게 주신 찬양의 위로 “너 성결키 위해”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곳엔 늘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낡은 성경을 들여다보시며 설교 준비를 하시고 두 손 모으며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손에 잡힐 듯이 또렷합니다. 부산의 고신측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시며 은퇴하신 그 양지에서 자란 저는 교회가 집이었고 학교였고 안식처였기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에 제 삶의 변곡점을 마주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연히 주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에 천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자신이 그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초등 4학년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쉬이 회복되지 못하여 매일 밤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던 많은 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기도의 열기와 저의 고열이 서로 사투를 겨루던 끝에 맞이하던 열띤 새벽을 여러 번 보낸 후에야 끝내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놓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저를 건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 사건은 제 삶의 이정표와 같아서 어떤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때 저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로 피아노를 전공한 저는 반주자로 섬기며 평탄히 살아왔습니다. 5남매의 둘째인 저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남동생이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지요. 그 고민을 교회와 기도원에서 술한 밤을 하나님 앞에 엮드리어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아팠던 막내 남동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과 저의 그 이정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제가 은혜로 받은 찬양이 바로 “너 성결키 위해”라는 찬송가 420장입니다. 고난의 자갈밭을 맨발로 건널 때의 고통은 이 찬양이 주는 위로와 평안으로 눈물이 되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뒤집어쓰고 불려야 할 정도로 울음이 배어있는 찬송입니다. 결혼 이후 시댁과의 갈등이나 삶의 무게로 교회에 나와 기도로 엎드려야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듣게 하시더군요. 잘 불리지 않는 찬송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최근에는 남편이 큰 수술로 치료를 받아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회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남편의 병환으로 들었던 처음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분의 자녀의 생명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드리며 또다시 그 이정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즘은 아침상을 차리며 남편과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고백도 함께 드리게 되네요.

돌아보니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았는지 그 수를 하나 하나 헤아리게 되네요. 한편으론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것이 너무 박하여 제 빈손을 한참 바라보게 됩니다. 제게 무엇이든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같이 올려 드립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의 이정표 앞에도 같이 서 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 원성희 권사(리브가회)

너 성결키 위해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너 성결키 위해
(찬 420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
그분의 영광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이 모든 것은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좋은 기도의 추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는 서곡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 브라이언 채플」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은혜의 문이다.
염려를 대신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내 안의 불안은 변하여 평강으로 옷 입는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고백은
기도가 결코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일깨운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이름은 기도의 추신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과 근거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서곡이다.

따라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자리다.
기도의 시작도, 끝도, 그리고 응답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완성된다.

• 김현덕 목사

새벽이슬 청년부 국내 전도 여행, 제주와의 동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call out)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call up),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call in)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선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다시 보내진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교회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일상 ‘선교지’이고, 그런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새벽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꿈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올해 청년부에서는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전도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저 멀리 남아프리카공화



국으로, 가까운 정도로, 또 제주도로 많은 청년들이 이번 여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주에서의 5박 6일 전도 여행은 우리 청년들에게 부르시고, 또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하나님 사람들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먼저 ‘나무와 숲’이라는 기독교대안학교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기쁨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서귀포에 세워진 ‘제이홈처치’라는 개척교회 성도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되어, 더욱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렇기에 다시 보내진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 김수연 목사(청년1부)

우리의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청년부가 제주도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에서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레크레이션과 천로역정 UCC 제작을 함께했고 제주열방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한 개척교회인 제이홈처치에서는 페인트 봉사를 하고 노방전도와 금요기도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여러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무더위와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힘주시는 분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잘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고 서로를 세워주며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은혜였기에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이번 전도 여행은 우리가 사랑을 전하러 간 자리였지만 돌아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더 풍성히 받고 채워져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류승연 청년(46대·청년1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저는 이번 제주도 아웃리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정말 커서 이 은혜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의 일주일간 저희는 두 곳의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규모는 작았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비전은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비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제주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일 설교와 금요예배의 설교를 들으며 항상 ‘하나님 사랑을 삶의 모습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데, 제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모습을 통해 흘려보내라는 말씀을 너무도 잘 실천하시며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삶이 저뿐만 아니라 이번 아웃리치를 함께 다녀온 동역자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흘러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혹 선교를 가기를 원하지만 망설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제주도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권순형 청년(52대·청년1부)



“삶은 만남이다”

범어교회 청년들과 나무와 숲의 만남



“삶은 만남이다.” 마틴 부버의 말입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관계와 만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와 숲 학교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만남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무와 숲이 바로 그런 만남의 황금어장이 되기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멀리 대구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범어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봉사하러 온 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뛰고 함께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복음의 만남, 하나님 나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동시대에 신앙을 지켜가는 선배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청년들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보았고 그들의 태도 속에서 믿음이 삶이 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을 신앙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청년들 역시 아이들의 순수함과 배움의 열정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언제나 만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모두 나무며 숲을 이뤘습니다.

범어교회 청년들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흔적으로 남아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무와 숲 학교가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의 터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권오희 목사(제주 나무와 숲 학교 교장)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은혜

언제부터인가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읊드려서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생긴 제 아침 루틴입니다.

유난히 겁이 많았고 소심했던 제게 세상은 참 두렵고 버겁고 막막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 늘 불안에 놀렸던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평안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싶는데 주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하던 차에 주보에서 전도 폭발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표현에서 부담감이 좀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첫 개강 예배 때 지도자이신 장철웅 목사님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독을 강에 폭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제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도 폭발은 저를 주님께 온전히 맡



기는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도 폭발은 찬양과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육신에 새기며 복음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단계는 전도의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범과 교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2단계는 훈련생들끼리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훈련자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무얼 먹었는지도 잘 기억 못 하는 제가 복음 전문을 외워 대상자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사연으로 굶이굽이 인생길을 걸어오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벌써 3단계 훈련생이 되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석했었는데 3단계는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설레기까지 합니다. 전도 폭발은 주일 날 예배만 드리고 급히 교회를 빠져나가던 제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동시에 안겨준 귀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눈앞의 작은 파도에 놀라고 떠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이전보다 빨리 저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깊은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하실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매주 부드러우면서도 울림 있는 찬양과 은혜 가득한 말씀으로 전도 폭발을 뜨겁게 이끌어 주시는 장철웅 목사님, 그리고 저희들이 편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스텝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모함으로 타 교회에서 오시는 권사님과 전폭 식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죄인인 저희에게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이소요 집사(하사모)

들을 귀를, 분별할 지혜를, 순종할 용기를 주시길

올해 인터뷰 코너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 순서로 청년부를 섬기시는 **김수연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Q. 목사님의 가족관계와 유년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A. 청년부에서 만나서 8년 동안 연애한 아내와 결혼한 지 올해로 5년째가 되었고, 곧 세 돌이 되는 첫째 딸과 아홉 돌이 되지 않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5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살았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아버지께서 염색공단에 취업하시면서 대구로 오시게 되었는데, 어릴 때는 서구 비산동에서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1998년에 성서로 이사해서 아버지께서 치킨 장사를 시작



하셨습니다. 지금 계명문화대 있는 곳 근처 언덕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쫓 성장했습니다. 그냥 축구와 운동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Q. 신앙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A. 부모님께서 먼저 전도를 받아서 성서남부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중학교 3학년 때 저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중고등

부 전도사님께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우방랜드 자유이용권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친구 4명을 데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엔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면 교회에 가서 놀고 간식도 먹고 주말에는 집사님들과 함께 운동하고 여름이면 계곡에도 가고 수련회에도 가면서 정말 즐겁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 다녔던 교회에는 청년부도 따로 없어서 20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다른 교회를 고민하시던 중에, 지역에서 금요기도회로 뜨거웠던 내일교회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동생도 따라서 옮기게 되었고요.

Q.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계기와 과정은요?

A. 사실 그때까지는 교회를 재미로 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은 있어서 군대에서 힘들 때는 성경도 보고 예배도 나갔지만, 제가 필요할 때, 저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 느낌이었거든요.

군 생활이 편해지니까 그 후부터는 또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가 온 것은 제대 후 복학하고 나서였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대학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던 중에 교회가 떠올라서 그 주부터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세워놓았던 제 계획에 의도치 않게 차질이 생기면서 겨울 수련회를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에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울면 속이 후련할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도를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련회 이후 제 마음에 찾아온 이 느낌이 무엇인지, 또 느끼고 싶어서 1년간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수는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 관계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Q. 하나님을 만날 때 도움을 주신 분이냐, 하나님을 만난 후 닮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A.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만났던 목사님은 너무나 사랑과 눈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와 아내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잘 지도해 주셨어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이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 목양에 너무나 필요한 사랑을 몸소 보고 배울 수 있었구나 싶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앞선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가시고 오신 분인데, 성향이 너무 달라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당시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나를 공동체에서 나이가 있는 선배라고 생각해서 목사님께 맞서서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많이 부딪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런 저를 피하지 않으셨고, 제가 드린 날 선 질문들을 들어주시며 저를 이해시켜 주셨어요. 이후 그 목사님과 청년부에서 5년을 같이 섬기고 후에 간사로까지 섬기며 특히 사역적인 부분에서,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언제였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A. 4학년 2학기에 교회 특새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주간의 특새에 참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저를 부르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스스로 확신도 부족했기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힘든 3년이었습니다. 회사 지원을 20~30군데 했는데 모두 떨어지더라고요. 뒤늦게 토익 공부하고 자격증을 준비해서 드디어 한 회사에서 합격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가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 기간에 대학부 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간사로 섬겼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Q. 목회자로서 평생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A. 제 카톡 프로필에 늘 새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뛰어남보다 꾸준함, 순응보다 순종’이라는 말인데, 늘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그저 꾸준한 사람이고 싶어요. 또 환경에 익숙해져서 적응하는 순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주시길, 분별할 지혜를 주시길, 순종할 용기를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승 목사님이 사역 나갈 때 주셨던 김영봉 목사님의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맘에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의 설교가 생애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무게, 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끝고 싶네요.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저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 집회에서 하나

님께서 완전 초신자인 친구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다음 날도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 간증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욱 주께 쓰임 받고 싶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쓰임 받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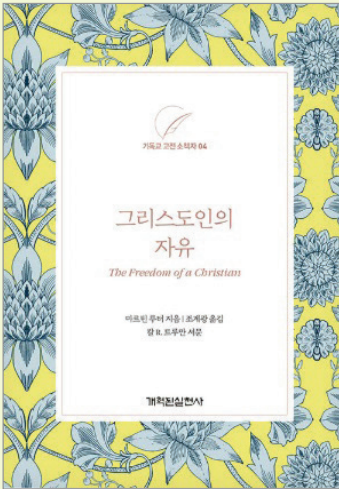
Q.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저는 범어교회에 참 빛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신대원 등록금을 준비했는데 스리랑카 단기 선교가 너무 가고 싶어 모아둔 등록금으로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니 당장 등록금이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범어교회 인턴으로 오게 되었고 아무 자격도 없는 제게 조건없이 장학금을 주셔서 신대원 과정도 마치게 해주셨고, 최근에는 박사과정 공부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또 귀한 장학금을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나대!’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 정리 교회보팀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그리스도인의 자유 (마르틴 루터, 개혁된실천사, 2024)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 그 하나만을 보기로 정하셨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셨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행위란 믿음의 성취로 인한 결과물일 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을 들여야 할 유일한 활동과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믿음을 끊임없이 활용해 강화하는 것이다. 그 외 다른 활동과 노력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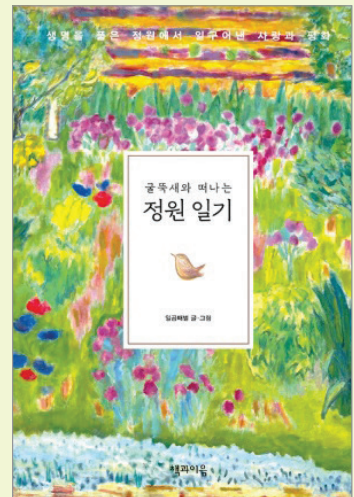
굴뚝새와 떠나는 정원 일기

(일곱째별, 책과이음, 2024)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안주에 다다를 수 있을 것처럼 끝없이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 한다. 삶이 여행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도 현실감 없는 얘기 같다. 차 트렁크에 실을 정도의 짐을 소유하고 오늘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단단한 마음일까. 더 잘사는 것과 더 행복해지는 것은 함께 있지 않다.

“소박은 궁핍이 아니다. 비움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 것은 알을 깨는 고통만큼 쉽지 않다. 고난이 없이는 달라짐도 나아짐도 없다.” 굴뚝새와 떠나는 정원 일기 中



9월의 범위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거룩한 동행 | 3일(수)~5일(금)에 “진리의 복음, 거룩한 동행”이란 주제로 2025년 하반기 거룩한 동행이 이어졌습니다. 3일(수) 탁지일 교수, 4일(목) 박재은 교수, 5일(금) 윤영희 교수를 모시고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며 개혁을 살아내길 소망하는 집회였습니다.

청년위크 | 19일(금)~21일(주일)에 “청년의 일상에 은혜를 붙어넣다”란 주제로 청년위크가 있었습니다. 19일(금)에 이정규 목사, 20일(토)에 기프티드 찬양집회, 21일(주일)엔 진태현&박시은 부부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안수집사 친목회 | 20일(토)에 상주 경천대 일원에서 안수집사 친목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위로회 | 27일(토) 2층 예루살렘채플에서 주일학교 교사 위로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찬양대 세미나 | 27일(토) 갈릴리채플에서 할렐루야찬양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박람회 | 28일(주)부터 3주 동안 1층 교사의실에서 주일학교 교사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모든 일상에 은혜가 스며들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다음세대 청년들의 얼굴입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 안타까워 하시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주일 설교 중

“사랑이 권리를 포기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랑때문에 예수님
을 포기하셨다. 사랑하면 억울
하지 않다”

금요기도회 설교 중

“교회가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서
도 희망할 수 있는 까닭은 시작하
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다.”

주일 설교 중

“가치 있는 삶이란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을 품고 나의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내어놓는 것이다.”

주일 설교 중

“시작하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
음에 대한 부르짖음이 우리를 살린다.”

주일 설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 김은선(김종문 집사, 강심능 집사)
- 김건후(김정호 성도, 강믿음 성도)
- 김도현(김선율 집사, 황혜진 집사)
- 천시아(천세민 집사, 안유정 집사)
- 정해봄(정치열, 천지혜 집사)
- 이아진(이금강 성도, 최유진 집사)
- 허주안(허승일 집사, 이모빈 집사)

■ 축하 | 이영태 집사(오창화 집사) 장녀 이하은 양
2025년 법관(판사) 임용

■ 공연 | 변인숙 집사 : <2025 대구 국제 무용제>
9월 14일(주일)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 출산 | 박윤미 성도 득녀 : 9월 15일

■ 결혼

- 강태완 강도사 : 9월 6일(토) 4시 20분, 수원 루클라비
- 김미숙B 집사의 장녀 이흥주 양 : 9월 13일(토) 10시 50분, 호텔 라온제나
- 조은숙 집사의 장녀 홍지혜 양 : 9월 13일(토) 1시, AW호텔
- 노규희 전도사의 장녀 이지은 양 : 9월 20일(토) 12시 40분, 중앙컨벤션센터

10월 교회 행사 안내

- 5일(주일) : 주일설교 최원용 목사
- 12일(주일) : 성찬식 (1~4부)
- 26일(주일) : 종교개혁주일
의료선교위원회 주관예배(오후)
정기당회

10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9월 28일(주일)~10월 12일(주일) : 교사 박람회
- 12일(주일) : 중등부 전도축제- 레크레이션 및 특별 공연
- 18일(토) : 중등부 공동체 놀이 및 영화관람, 식사
- 19일(주일) : 중등부 복음설교 및 간증
- 19일(주일), 26일(주일) : 초등부 전도축제 및 운동회

편집장 | 허윤정

부편집장 | 이영선C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수민, 김정모,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신규식, 여경진

자문위원 | 박용수, 배지연, 조성희A, 이창권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한영혼을 초 향한 부르심 교사의 대 자리로 합 니다

Deuteronomy 6:6~7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025. 9. 28~10.12

장소: 1층 주교의 뜰 (행정사무실 맞은편)

